

靑銅器時代의 聚落

— 부산을 중심으로 —

윤 태 영

(국립김해박물관)

I. 머리말

II. 청동기시대 부산지역의 지리적 환경

III. 청동기시대의 취락

I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 靑銅器時代 聚落 취락¹⁾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蔚山 檢丹里遺蹟을 발굴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蔚山 檢丹里遺蹟의 발굴로 그동안 막연히 존재의 가능성만 제기되었던 環濠²⁾와 환호로 둘러싸인 많은 수의 주거지, 고인돌과 같은 분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개별주거지나 유물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라 당시 생활공간인 마을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국토개발에 따른 救濟發掘로 몇 만평에 이르는 대단히 넓은 면적으로 발굴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청동기시대의 사회상을 복원하는 귀중한 자료를 더욱더 많이 확

- 1) 취락에 대한 개념은 Settlement Archaeology로 이는 연구자들마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마을고고학, 聚落고고학 등으로 번역되며, 일본의 경우 集落으로 번역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아래의 논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고에서는 임의로 취락을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공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Chang, K. C., 1968, *Toward a Science of Prehistoric Society*,
Settlement Archaeology, K. C. Chang(ed.), National Press Books, Palo Alto, 1-9.
Piggott, S., 1965, *Ancient Europe from the Beginnings of Agriculture to Classical Antiquity*, Edinburgh.
Rouse, I., 1968, *Prehistory, Typology, and the Study of Society*, *Settlement Archaeology*, K. C. Chang(ed.), National Press Books, Palo Alto, 10-30.
권학수, <역사시대 마을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994.
Murdock, G. P., 1949, *Social Structure*, Macmillan Company, New York.
小澤佳憲, <弥生集落の動態と劃期-福岡縣春日丘陵域を對象として-> 《古文化談叢》第44輯, 2000.
- 2) 環濠는 마을의 주위에 도랑을 파고 독을 쌓아 木柵을 세운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랑과 木柵을 세울 때 판 기둥구멍자리 뿐이다. 이에 대한 성격과 기능은 마을의 경계를 표시함과 동시에 어떤 특수기능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한 용어도 環溝로 표현하기도 한다.

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晉州 南江댐 補強工事로 실시된 南江流域에 대한 발굴조사³⁾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南江을 낀 沖積平野地帶에서 마을을 둘러싼 환호와 다양한 형태의 住居址群 및 墳墓群이 정형화된 모습으로 확인되어 이들 유구의 공간배치와 규모를 통해 당시 사회구조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 주변에서는 당시 경작하였던 밭과 곡물자료들도 발견되어 경제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鏡湖江유역의 山淸 默谷里유적에서는 水邊祭祀를 행한 흔적이 발견되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제사유적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觀念世界를 究明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蔚山 玉峴遺蹟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논 유적이 발굴되어 農耕의 實像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泗川 梨琴洞유적에서는 마을과 분묘유적 사이의 공간에 길이 24m, 너비 8m에 이르는 神殿으로 추정되는 大形堀立柱建物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本稿는 부산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을 중심으로 당시 聚落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부산지역은 일찍부터 도시화가 진행된 까닭에 본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臆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산지역의 지리적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고고학적 성과와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유적과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嶺南考古學會,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 1998.

慶尙大學校博物館, 《晉州 大坪里 玉房 2地區 先史遺蹟》, 1999.

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II. 靑銅器時代 釜山地域의 地理的 環境

청동기시대 부산지역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곳은 몇 군데나 되며, 또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聚落生活은 어떠하였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활을 잘 반영하는 자료들을-가옥, 가옥에 딸린 각종 부속시설, 경작지, 무덤군, 제사터 등등-충분히 확보하여야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지역은 일찍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단편적인 자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地理的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최근 발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동기시대 취락의 모습을 복원하여 보고자 한다.

지형적으로는 크게 金井山脈을 기준으로 東部丘陵性山地帶와 西部平野地帶로 구분할 수 있다. 동부구릉성산지대는 발달된 리아스식 海岸을 끼고 있지만, 河川의 流路가 짧고, 直線的이며, 구배가 급하다. 그리고 流域에 넓은 沖積平野의 발달이 微弱하지만, 河口一帶에는 小灣入이 발달되어 소규모의 해안충적지가 형성되면서 浦口로 이용되는 특징이 있다. 하천의 상류에는 규모가 작은 선상지가 분포하는데, 이러한 선상지는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왔다. 반면에 서부평야지대는 하천의 구배가 극히 완만하고, 유역에는 광활한 충적평야가 발달되었다. 그렇지만 낙동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산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지형도를 살펴보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다섯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구역은 水營江과 東川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이다.⁴⁾ 두 번째 구역은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주변지역을

4) 수영강 일대와 동천 일대는 현재 송상현동상 삼거리(옛날 지명으로는 馬飛 峙)를 중심으로 두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리적 특성이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한 구역으로 묶어 설명하고자 한다.

들 수 있다. 세 번째 구역은 내륙산간에 해당되는 동면 월평과 定冠面 일대이며, 네 번째 구역은 남해안에 인접한 현재의 大新洞 일대와 甘川洞, 多大洞 일대이다. 이들 구역은 모두 동부구릉성산지대에 속한다. 다섯 번째 구역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주변지역으로 서부평야지대에 속한다.

그러면 이들 구역의 지형적 특징과 기존에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부평야지대는 강서구 범방리, 미음리, 생곡리, 구랑리 일대⁵⁾를 포괄한다. 이 일대는 금병산·보배산·봉화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충적평야와 맞닿는 산록에는 신석기시대 이래로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⁶⁾ 이 가운데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美音洞支石墓遺蹟과 智士科學地方產業團地豫定區域에 대한 地表調査⁷⁾에서 무문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 미음동지석묘유적은 분절마을에 위치하며 이 일대는 해발 20-3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는 곳이다. 지석묘가 위치하는 곳의 뒤쪽으로는 장유로 넘어가는 해발 220m의 長有峙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古金海灣과 접해 있어 선사시대 이래 교통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아직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예가 없지만 강서구 송정리 일대도 충분히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일대는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해 있으며, 장고개를 넘어서면 강서구 미음동과 통하는 곳이다.

낙동강 동안에서는 시약산에서 발원하여 낙동강 본류로 흘러드는 괴정천·학장천·구포천·화명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괴정천

5) 智士川과 凡方川이 이들 구역을 관류하고 있다.

6) 서부평야지대의 대부분은 古金海灣에 해당되는 곳으로 해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제강점기에 제방공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고고학적 유적도 산기슭과 같은 해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릉성지에서 많이 확인된다.

7)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智士科學地方產業團地豫定區域內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97.

의 상류지역인 괴정1동8)과 괴정2동9)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괴정동패총10)이 있었지만 현재 도시화로 모두 소멸되었다. 낙동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자주 받는 곳으로 하천의 하류보다는 상류 주변이 사람들이 살기가 적당한 곳이었을 것이다.

동부구릉성산지대는 첫째 구역에서 넷째 구역까지 포괄하며, 부산지역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첫째 구역은 수영강 일대와 동천 일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수영강은 총길이 20km로 양산시의 원효산에서 발원하여 남서방향으로 흐르다가 해운대구 재송동에 이르러 금정산에서 발원하는 온천천과 합류하여 수영만으로 유입하는 하천으로 석대천, 거제천을 지류로 가진다. 이 지역은 수영강범람원과 동래 곡저평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수영강범람원은 수영강을 따라 하천의 양안에 좁고 길게 발달한 충적평야로 수영강의 중류인 연산동에서 수영만으로 열려 있는 하구까지의 평야이다. 연산동과 수영동 일대에는 수영강의 배후습지도 일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래 곡저평야는 금정구 두구동에서 동래구 거제동에 이르는 좁고 긴 대상평야로 온천천의 하곡에 해당된다. 한편 만덕고개11)를 통해 낙동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노포동유적·반여동유적·내성유적·오륜동유적·두구동 임석유적·온천동유적·사직동지석묘유적·거제동유적·반송동유적·장전동유적·수영동유적·양정동유적·부곡동유적·금사동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발굴

8) 金廷鶴編,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鄭澄元, <先史時代의 文化財> 《釜山市史》4, 1992.

9) 金廷鶴編,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10) 朴尙憲, <洛東江口 東岸의 貝塚> 《考古美術》第6卷 第6號, 1965. 6.

杉原莊介, 《日本農耕文化形成》, 吉川弘文館, 1977.

尹邵映, <釜山 槐亭洞出土 丹塗磨研土器> 《古文化》40·41, 1992.

11) 본래 이 고개는 其比峴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은 노포동¹²⁾·반여동¹³⁾·내성¹⁴⁾·두구동 임석유적¹⁵⁾ 정도이며, 오륜동유적은 발굴조사 중 청동기시대의 석부, 유구석부, 지석, 토제방추차 등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려준다.

그리고 온천동유적은 주거지와 지석묘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¹⁶⁾는 금강공원내의 남단인 동남으로 뻗은 해발 40-50m정도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심발형무문토기와 일본의 야요이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지석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다만 여기서 출토된 마제석검과 석검과 온천동 지석묘라고 기록된 조사 당시의 사진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노포동유적과 반여동유적은 모두 수영천에 인접한 구릉의 사면에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내성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유적으로 谷底에 위치한다. 석대천의 상류에 해당되는 소침식분지인 고촌리 일대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입지적으로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1995년도에 부산시로 편입된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일대는 수영강의 상류에 해당되며, 선상지와 충적평야가 어우러져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월평일대는 소침식분지로 이 곳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물¹⁷⁾이 출

12)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 老圃洞遺蹟》, 1988.

釜山市立博物館, 《釜山 老圃洞遺蹟》II, 1988.

13) 林孝澤, <釜山 盤如洞遺蹟 發掘調查概報> 《嶺南考古學》2, 1986.

14) 宋桂鉉·河仁秀, 《東萊福泉洞 萊城遺蹟》, 釜山市立博物館, 1990.

15) 朴志明·宋桂鉉, 《釜山 杜邱洞 林石遺蹟》, 釜山市立博物館, 1990.

16) 申敬澈, <釜山 東萊溫泉洞出土 無文土器> 《伽倻通信》10, 釜山大學校博物館, 1984.

鄭澄元, <先史時代의 文化財> 《釜山市史》4, 1991.

17)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廣域市 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8. 2.

토되어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로 보아 서쪽으로는 마비치가 있는 현재 행정구역상 부산진구 양정동일대가 경계이며, 동쪽으로는 석대천의 상류 소침식 분지인 철마면 고촌리일대, 북쪽으로는 수영천의 상류지역인 동면 월평동까지의 범위를 수영강 일대의 생활 활동범위로 볼 수 있다.

동천이 흐르는 주변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진구와 동구일대로 수영강유역과는 해발 40-50m의 馬飛峙¹⁸⁾로 구분된다. 이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유적은 당감동에서 출토된 석착¹⁹⁾과 당감성지 발굴시 채집된 석부²⁰⁾가 있다. 범전동, 전포동 패총²¹⁾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고 전해질 뿐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동천 일대는 일찍이 도시화가 진행된 까닭에 지형의 변화가 심한 곳이나 연지동과 부암동·전포동 일대의 완만한 구릉지대를 이루며, 부산지역에서 수영강 다음으로 긴 길이 8km의 하천으로 부전천·전포천·가야천·호계천 등의 지류와 바다로 흐르면서 하구주변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²²⁾가 형성되어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두 번째 구역은 기장군 일대로 동해로 흘러드는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용소천, 장안천, 일광천, 좌광천, 월래천, 만화천 등이 있으며, 이들 하천의 상류에는 소선상지가 발달하여 인간이 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류에는 좁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만입이 발달하여 포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용소천유역에서는 무문토기와 석부가 출토되었으며, 수영강과 합류하는 구칠천유역에서는 지식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좌광천 하류

18) 옛날에는 험한 산 고개로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국도를 만들고 동해남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19)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1997.

20) 상동.

21) 朴敬源, <慶尙南道 史前遺蹟·遺物地名表> 《考古美術》2-4, 1961.

22) 서면에서 부산진성 사이를 잇는 일대는 동천의 퇴적활동으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었으나, 이후 바다물에 의해 형성된 해안평야가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에 해당하는 임랑리에서는 마제석부가 채집²³⁾되었으며, 월래천 하류역에서는 반월형석도와 망추차²⁴⁾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구역은 정관면 일대로 부산지역에서 가장 넓은 침식 분지를 관류하는 좌광천의 퇴적작용으로 소선상지가 발달하였으며, 동해에 면한 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해발 126m의 완만한 구릉상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²⁵⁾

네 번째 구역은 현재 부산의 중심지인 중구와 서구일대와 감천동, 다대동 일대이다. 구덕산과 고원전산에서 발원하여 서구의 대신동과 부용동·보수동·남포동을 지나 부산 南港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5km의 보수천이 있다. 이 일대는 첫째 구역과는 달리 충적평야가 발달하지 못하고 보수천의 상류에 형성된 소침식분지인 대신동 77번지에서 상자형 석관에서 무문토기편과 석검²⁶⁾이 1934년에 출토되어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이웃한 감천동에서는 지식묘유적²⁷⁾이 조사된 바 있는데 이 지역은 바다와 면해 있는 곳으로 유로가 짧은 감천천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구평동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소멸되고 유물 또한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들 감천동과 구평동은 바다와 면해 있는 곳으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다와 관련된 곳으로는 조도패총과 가덕도 두문지석묘가 있다.

23)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廣域市 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1998. 2.

24)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25)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廣域市 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1998. 2.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鼎冠宅地開發事業地區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2000.

26)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有光教一著作集》1, 同朋舍, 1990.

27) 朴商憲, <釜山 甘川洞支石墓> 《考古美術》7-1, 1966.

Ⅲ. 青銅器時代의 聚落

본 장에서는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부산지역의 각 구역에서 확인된 유적과 유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울산 검단리유적이 발굴된 이후 전국에 걸쳐 마을단위의 유적이 지속적으로 조사됨으로써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조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晋州 남강댐 보강공사로 110만평의 수몰예정지구에 대한 남강유역발굴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舊石器時代부터 三國時代까지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유적이 대부분이다. 분묘와 주거지, 밭, 제사유적, 환호 등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밝혀진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는 비록 大坪지역에 한정된 것²⁸⁾이기는 하지만 玉房 1지구와 玉房 4지구에 각각 중심이 되는 大聚落이 있으며, 이러한 大聚落을 중심으로 ‘一般住居密集地域-埋藏空-間耕作地-경작에 수반된 소수 주거’라는 하나의 마을유형을 상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주거지를 둘러싼 환호가 있으며, 환호 밖으로는 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밭 가운데는 작업 중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과 주거지가 있었다. 분묘는 이러한 취락의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환호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육교가 있었으며, 일부 환호에서는 목책을 세웠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남강유역에 살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풍부한 수량을 가진 남강을 끼고, 비옥한 충적평야를 배경으로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과 강에서의 어로활동, 주변의 산에서

28) 慶尙大學校博物館, 《晋州 大坪里 玉房 2地區 先史遺蹟》, 1999.

의 채집과 사냥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울산 옥현유적과 야음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논유적이 발견되어 농경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農耕을 시작한 이후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反對給付로 自然에 대한 敬畏心이 생겨나 祭祀를 지낸 흔적들이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경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山淸·谷里유적이 있다. 유적은 鏡湖江에 인접하여 人爲的인 水路를 내고 여기서 농사에서 중요한 물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유적이다. 이 외에 주거지를 폐기하면서 지낸 제사의 흔적도 남강유역발굴조사에서 발견되었다. 한편으로는 남강을 중심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그리고 주변의 여러 지역과도 교류하였음은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되는 바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이러한 당시 생활을 복원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주거지와 분묘유적,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추정하여 보고자 한다.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유적으로는 노포동유적, 반여동유적, 동래내성유적, 온천동유적 등이 있으며, 채집된 유물로 보아 주거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륜동유적·거제동유적·기장 길천리유적·임랑리유적·시랑리유적·정관 두명리유적·龍岫리유적·북정패총·율리패총·조도패총·괴정동패총·기장·청강리유적·당감동유적·양정동·감천동·강서 지사동·미음동유적 등이 있다. 이밖에 부산지역은 아니지만 지형상 같은 구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유적이 월평 소침식분지내의 평산리유적²⁹⁾이 있다.

분묘유적으로는 사직동유적·온천동유적·두구동 임석유적·철마 신리유적·가덕도 두문지석묘·강서 분절지석묘 등이 있다.

29) 동아대학교, 《양산평산리유적》, 2000.

비록 분묘만 확인되었지만 이들 분묘가 발견된 주변지역에서는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모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들 주거유적은 대부분 구릉의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바다환경이 海面 海退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지금보다 높았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당시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한다면 부산지역의 대부분 하천의 하구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류의 비교적 공간이 넓은 장소를 거주지로 삼았을 것이다. 반대로 바다에 대한 生活依存度가 더욱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부산지역 하천의 특성상 진주 남강유역과 같은 비옥한 충적평야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경이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주 식량취득은 주변 산이나 하천, 그리고 바다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였을 것이다. 이는 환경이 비슷한 古蔚山灣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남긴 盤龜臺 巖刻畵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늦은 시기에 생활근거지가 되었던 수영강변의 東萊貝塚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사실로서도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遺蹟의 立地로 보아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구역은 두 번째 구역과 부산만에 위치한 섬들이다.

유적으로는 조도패총·울리패총·감천동유적·임랑유적·기장 길천리유적 등 바다와 인접한 유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기장 임랑유적과 길천리유적, 감천동유적에서는 반월형석도, 마제석부, 유구석부, 석착 등이 출토되어 산에서 나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0) 최근에 울산 옥현유적과 아음동유적에서 농경의 직접적인 증거인 논유적이 발굴되어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식량확보에서 차지하는 농경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조사된 논유적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거주인구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다양한 돌도끼는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천 상류지역에서는 주변 산에서 나는 자원을 주로 생활에 활용하였을 것이며, 하천을 통해 바다자원도 확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경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내성 유적과 온천동유적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일본 야요이식도기가 출토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바다생활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物的·人的 교류를 통해 부산지역에서도 발견되게 되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부족한 자료이나마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언급해 보았다. 자료로부터 추정가능한 생활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부산지역은 지형적으로 크게 다섯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이 수영강과 동천 일대이며, 이는 늦은 시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삼국시대 지배자 분묘군인 福泉洞古墳群이 이 구역에 조성된 사실만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수영강과 동천 일대는 농경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며, 바다를 통한 漁撈活動과 對外交流를 하고 있었다. 다른 구역에서는 농사를 지을만한 충분한 자형적 조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바다와 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낙동강 본류의 영향을 받는 하천유역에서는 유적이 모두 하천의 상류에 집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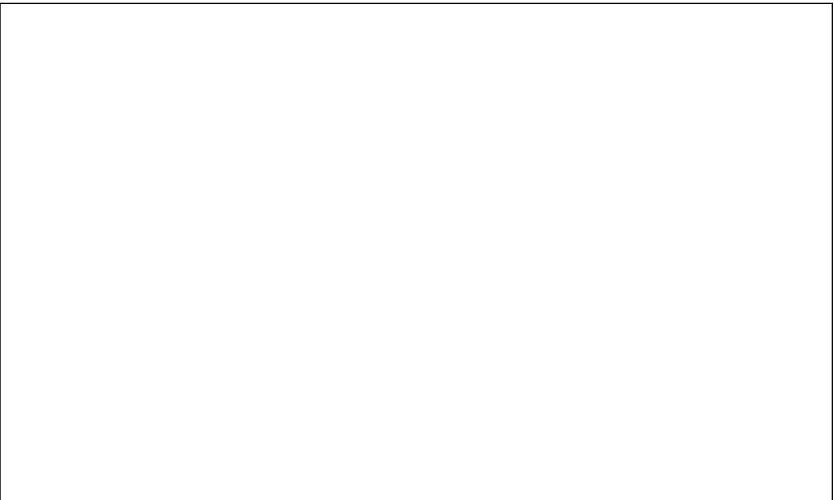
있음을 분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거주공간이 매우 한정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 밖에 釜山灣의 작은 섬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각 구역마다는 고개를 통해 서로 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수영강 일대를 중심으로 내륙구역인 월평, 고촌 일대와 동천유역과는 一日生活圈이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만덕고개를 넘어서면 낙동강과도 통해 수영강 일대가 일찍부터 부산의 중심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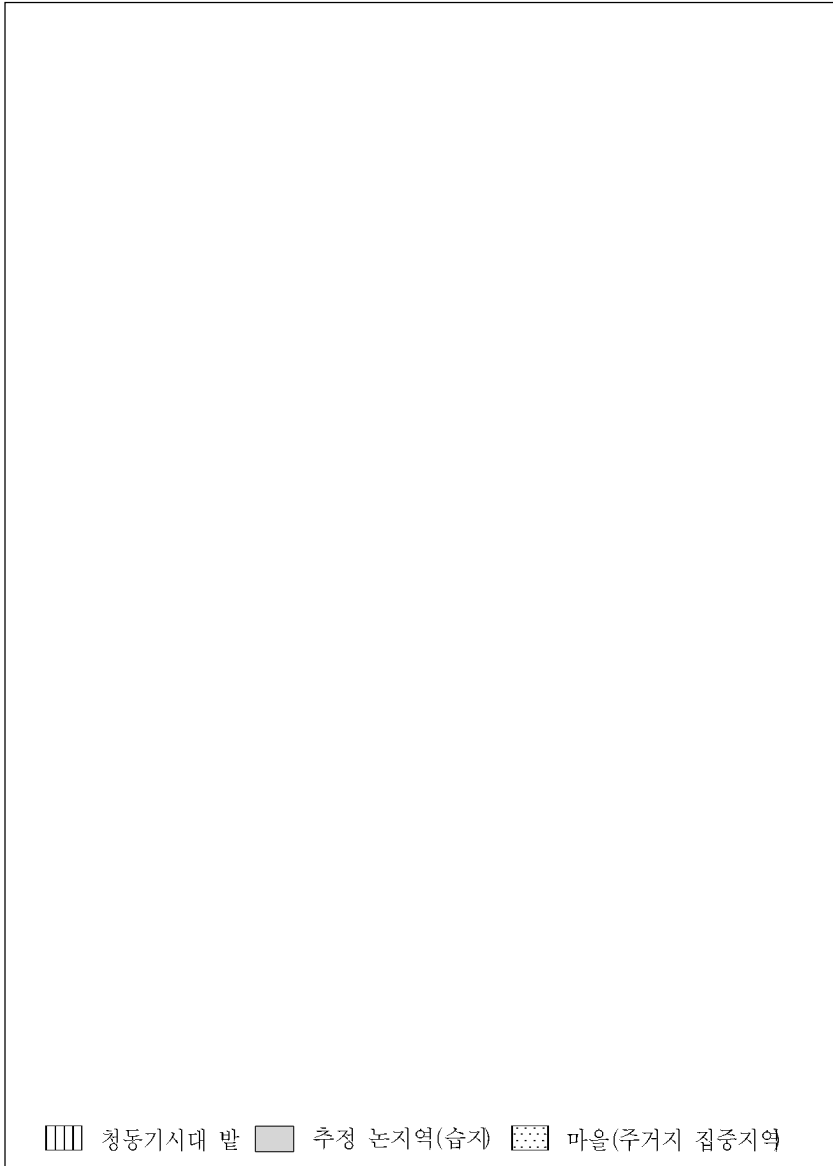
<그림 1> 부산지역의 생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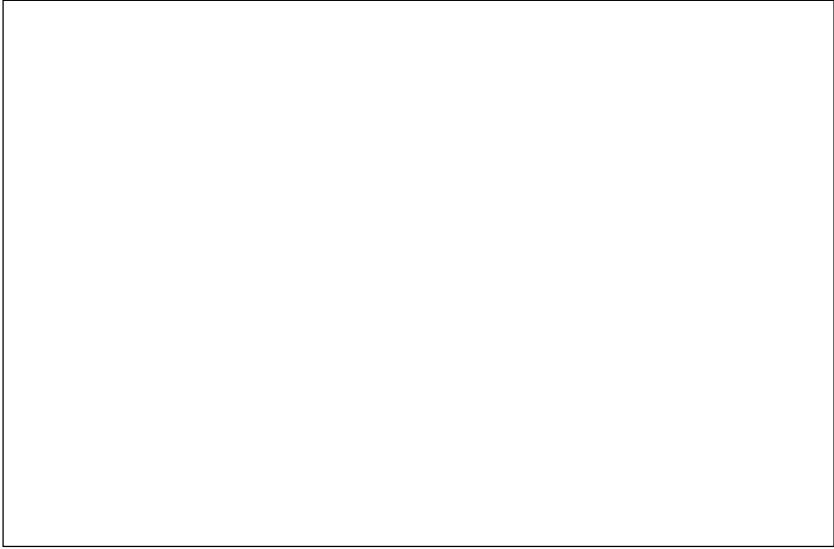
<그림 2> 울산 김단리 마을유적(환호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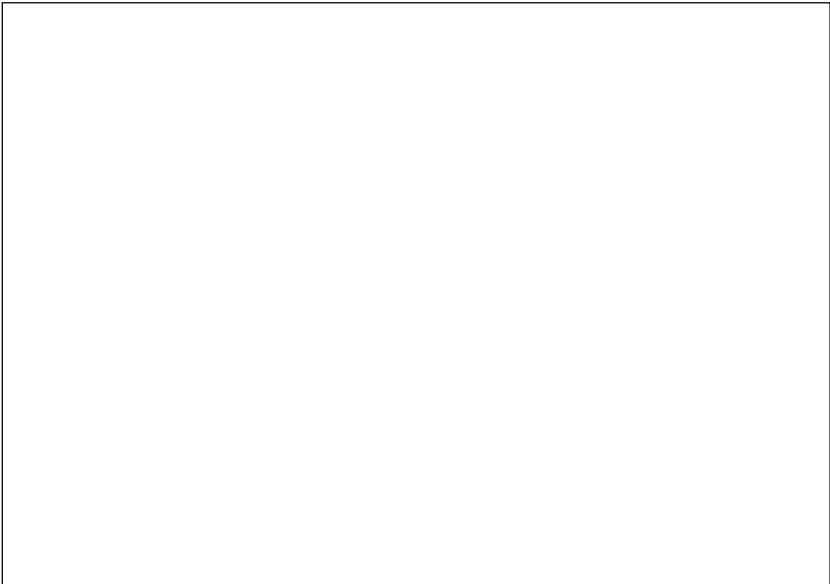
<그림 3> 창원 남산유적 환호취락



<그림 4> 진주 대평지역 마을과 경작지 개략도



<그림 5> 진주 어은 I 지구 밭과 주거지



<도면 6> 울산 야음동유적Ⅱ지구 유구 배치도